



# 양계안테나

홍보팀

## 백세미 산업화에 따른 질병 대책 가금티푸스 백신 난계대 피해에 대한 정확한 규명 있어야

5월 1일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을 앞두고 종계·부화업계와 백세미를 생산하는 계열사들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서로의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관리요령에는 그동안 질병의 온상으로 여겨져온 백세미(모계인 산란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근 종계인들과 백세미 생산업체들은 백세미를 생산하는 산란계에 대해 종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백신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세미관리를 종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백세미 생산용 산란계에 대해 백신을 못하게 하든지 종계에 백신을 사용토록하든지 하는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세미 생산업체에서는 모든 산란계농장에서 백신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종계장들도 백신을 접종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종계에도 백신을 사용토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종계인들은 종계는 산란계와 달리 병아리를 생산하는 만큼 난계대로 인한 감염확률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란계에서는 생균백신을 산란전 2차례에 걸쳐 접종을 하고 있으나 종계에서는 평사사육이 대부분이다보니 개체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 지난 1992년 가금티푸스가 국내에 처음 발생된 이후 전국에 폭발적으로 확산되자 백신사용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1년 3월에야 생균백신이 공급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가금티푸스가 종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예방 및 피해방지 차원에서 백신이 비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I사가 판매하고 있는 가금티푸스 생균백신은 종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종계에서의 사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이를 취급하는 대리점에 의하면 종계인들이 이를 요구할 경우 마땅히 거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백신의 종계사용을 원천적으

로 막기는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정화로 가기위해서는 백신을 하지 않고 살처분 정책으로 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살처분과 질병만연으로 인해 국내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닦고기 수입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부, 관련업계의 협명한 방안제시를 기대해 본다.

## 산란계 의무자조금 사업

### 사료를 통한 수납기관 선정직업 분석

2002년 5월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의무자조금제도가 양계업계에 전격 도입되었다. 육계와 산란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의무자조금 제도는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란계의 경우 수납기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면서 공동준비위원회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산란계는 사업특성상 전축종에 걸쳐 도축장(도계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하게 되는 방식과는 달리 정상적인 도계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 부화장을 통해 병아리 분양 시 일정금액을 거출하는 방법이 모색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환우계 사용은 물론 병아리 폐사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최근 사료에서 거출하는 방법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사료에서 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데에 대부분의 산란계 농장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며, 사료회사에서도 사료를 통해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회에서도 산란계 자조금 수납기관을 사료업체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농가들로부터 거출기관 변경 동의서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사료업체를 방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사료구매 형태와 가격이 농장마다 다르고, 사료대금 부채시의 거출문제, 사료관리 프로그램 운영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다가서고 있다.

현재 자조금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양돈업으로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도축장에서 두당 400원씩 거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9개월동안 31억원을 거출하였으며, 금년에는 60억 거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TV광고 등 각종 홍보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낙농분야도 이미 공동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양계분야에서도 의무자조금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양계산업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련업계에서 적극 협조하여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북한 닭고기 수입 무기한 연기 검역을 통한 AI 원천 차단에 노력을

지난달 17일 북한 남포항에서 인천간 항로를 통해 북한산 닭고기 40톤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입 하루전에 북한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닭들이 폐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입이 무기한 연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평양의 5대 닭공장(양계장) 중 하나인 하당 닭공장에서 한 달전 수천마리의 닭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 집단 폐사해 북한 당국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림부에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닭·오리 사육농장과 도축시설 등의 작업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북한 당국의 통제가 엄격하고 위생여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자 북한산 닭·오리고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고시한 바 있다. 수입업체에 따르면 닭고기 위생검사를 하는데 한달정도 걸리며, 위생검사가 끝나면 닭 가공공장이나 대형 할인점, 치킨점 등에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닭고기는 평양 인근의 가금육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운 것으로 자연산 닭고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수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언론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축산물이 첫 번째 수입되는데만 초점을 맞추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소식으로 수입이 연기되자 정부에서는 수입을 연기하는 등 사태파악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농림부에 의하면 북한의 닭 사육농장에서 공급하게 될 최대 닭 공급량은 2천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난 2003년말 기준 전체 8만8천톤이 수입된 것에 비하면 국내 시장에는 큰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감소했던 수입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브라질, 헝가리 등에서 수입닭고기가 큰폭 증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으로부터의 닭고기 수입소식은 국내 육계업계로서는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산자들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실을 떠나 북한의 위생수준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한을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생·검역도 이제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검원에서 관련부처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는데 협조를 구한 만큼 강력한 추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사업단의 왕래와 금강산 관광객들의 잊은 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유입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산 닭고기 사용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팍한 수입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는 막아야하지 않겠는가! **양체**